

시설미혼모의 양육/입양 선택에 관한 연구

이 은 주[†] · 최 규 련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The Study of Related Factors Affecting Unwed Mother's Decision on Self-nurture or Adoption of Her Child

Lee Eyn Joo[†] · Choi Kyu Reon

Dept. of Child & Family Welfare, Suwon University, Hwaseong, Korea

ABSTRACT

In this study, unwed mothers residing in nine residential facilities were surveyed by questionnaires. Those facilities were selected from national welfare facilities officially registered for single-parent families in 2011. The selected facilities were two places in Seoul, six places in Gyeonggi Province and one place in Chungcheong Province. The surveyed data were analyzed by statistical methods such as frequency, percentage, one way ANOVA, chi-square test and t-test, binary logistic regression using SPSS ver.17.0 program.

As a result, their decision of adoption or self-nurture on their child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various factors. Among pregnancy-related factors, pregnancy recognition tim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wo groups. Among personal factors, their age and cognition of parental role were important factors to differentiate two groups. In the analysis related with social resources, the self-nurture group had significantly higher experience and satisfaction on welfare service and lodging & boarding service compared to those of the adoption-choice group.

Key words: Unwed mothers, Rearing/adoption decisions

I. 서론

국내 미혼모 관련 기관을 통한 미혼모의 추이를 보면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수는 1991년 1,029명(시설 10개소), 1995년 990명(9개소), 2000년 1,273명(8개소), 2002년 1,673명(8개소), 2005

년 2,123명(14개소), 2008년 2358명(48개소)으로 시설 수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다(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9). 또한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4)의 연도별 전국 한부모 가족 현황에 의하면 지속적인 모자가구의 증가를 볼 수 있는데 2000

위의 논문은 2012년 석사학위 논문에서 일부를 발췌하였음.

접수일: 2014년 4월 30일 심사일: 2014년 6월 17일 게재확정일: 2014년 6월 29일

[†]**Corresponding Author:** Lee Eyn Joo Tel: 82-10-4992-3527

e-mail: hyunhyomom@naver.com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년 총 한부모 가구수(14,312) 대비 모자가구(1,124)의 비율이 7.9%에서 2012년 총 한부모 가구수(17,339) 대비 모자가구(1,677)의 비율이 9.3%로 증가추세이다. 한편 입양아동의 경우에는 91년 3,483명에서 95년 3,205명, 2000년 4,046명, 2002년 4,059명으로 연간 4000명 내외에 달하였으나, 2005년에는 3,562명, 2007년 2,652명, 2008년에는 2,556명으로 최근 들어 다소 감소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 그러나 2011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국내의 입양아동 중 미혼모 가정 출신아동이 91.8%에 이르고 있다(Kim et al. 2013).

한국여성개발원(2009) 조사에 의하면 571명의 조사대상자 중 입양계획중인 미혼모는 39%이고 양육하거나 양육을 계획 중인 미혼모는 53.5%로 전체 미혼모의 절반이상이 양육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가족형태의 증가와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호적에 자녀를 입적시킬 수 있는 법 개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시설지원으로 미혼모시설 입소기회의 증가 및 정부의 경제적 지원 등 사회문화적 여건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혼모에 관한 사회적 관행, 인식, 제도의 변화 등과 더불어 미혼모 스스로도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수용하는 등 미혼모의 의식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미혼모들에게 양육 또한 하나의 선택으로 수용될 만큼 그들의 사회적 위치가 다소 강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저출산이 이슈화되는 상황으로 볼 때 자녀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들이 더 이상 사회환경 및 제도적 요인에 의해 자녀를 포기하게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도 미혼모들의 출산 이후의 선택, 즉 양육과 입양의 선택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미혼모들이 자녀양육을 포기하는 주된 요인을 밝히려는 일임과 동시에 향후 미혼모 지원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

양육선택미혼모와 입양선택미혼모의 특징에 대한 관심은 1954년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Meyer et al.의 연구에서 아동 양육결정에 관계되는 요인들이 종교, 학력, 미혼부의 혼인상태, 연령, 취업상

태, 경제적 능력, 사회경제적 지위 등으로 나타났 다(Park 2001 requotation). 또한 1965년 영국에서는 Yelloly & Margaret가 160명의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미혼모가 출산한 또 다른 아이가 없는 것, 혼인중이지 않은 미혼부 등에 아동양육이 결정된다고 하였다(Park 2001 requotation). 이후 Resnick (1984)는 어떠한 청소년이 입양을 결정하고 어떠한 청소년이 양육을 결정하는 지를 발견하여, 미혼모들이 가능한 모든 선택들을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의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Resnick(1984)에 의하면 첫째, 정서적으로 더 불안정할수록 양육을 선택하고, 둘째, 부모의 의사결정에 셋째, 사회적 지원에 넷째, 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아 양육과 입양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는 주로 미혼모의 실태파악과 발생 원인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Kim 1995; Ahn 1984), 2000년 이후 미혼모의 입양 및 양육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연구되었으며 이에 대한 관련 변인으로 임신관련 특성, 개인적 특성, 사회적 자원 등이 보고되었다(Yoon 2000; Nho & Kim 2004; Ahn & Kim 2006;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9). 임신관련 특성의 경우는 현재의 임신을 희망했는지 여부와 임신을 인지한 시기, 이전 임신 여부 및 임신 횟수 등이고(Yoon 2000;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9) 개인적 특성의 경우는 연령, 교육수준, 결혼·성관계·임신에 대한 태도와 양육에 대한 가치관, 자아 존중감과 유아입양태도, 부모역할에 대한 기대, 미혼모의 사회인식에 대한 기대, 사회적 규범 및 성역할 의식 등과 같은 가치차원의 변인 등(Nho & Kim 2004; Ahn & Kim 2006;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9)이고 사회적 자원의 경우는 원가족과의 친밀정도, 미혼부의 임신인지 여부, 미혼부와와의 교제기간, 사회적 지지와 사회복지서비스 수혜 가능성 등이 보고되었다(Nho & Kim 2004; Ahn & Kim 2006;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9).

미혼모 연구의 최근 경향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미혼모로서 자녀출산이후 봉착한 자녀양육

문제에 관한 것이다. 즉 제도적인 혼인관계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임신한 미혼여성의 대다수는 낙태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이미 자녀출산을 앞두고거나 자녀를 출산한 여성들은 새로운 선택의 지점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이들의 선택은 미혼모로서 그들 자신과 자녀의 미래에 대단히 중요한 변화를 결정짓는 계기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미혼모 관련 연구는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와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에 관한 연구로 대별될 수 있다.

Nho & Kim(2004)의 입양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나이가 어리고 미혼부 및 가족과 연락을 취하고 있지 않으며 유아에 대한 입양태도가 긍정적일 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양육선택집단은 입양선택집단에 비해 미혼부와 연락하는 비율이 높고 미혼부가 임신을 인지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입양선택집단과 양육선택집단의 개인내적요인(자아존중감, 유아입양태도)과 개인외적요인(사회적 지지, 사회복지서비스 수혜가능성 인식)의 집단간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유아입양태도와 사회복지서비스 수혜가능성 인식에 있어서는 유의미하여 입양선택집단에서는 유아입양태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양육선택집단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수혜가능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는 다르게 Choi(2005)는 원가족이 미혼모 발생의 원인이기보다 양육미혼모와 상호적인 관계를 주고받는 대상으로서 원가족 역시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으로 인식해서 개입해야함을 논하였고, 양육선택집단이 입양선택집단에 비해 부모역할에 대해 보다 더 긍정적이라고 보고하였다(Donnely & Voydanoff 1991; Yoon 2000). 또한 Ahn & Kim(2006)은 연령, 교육수준, 가족동거여부, 가족구조, 출산결정요인, 임신에 대한 미혼부의 반응 등에서 양육선택집단과 입양선택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으며 미혼모의 양육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미혼모의 연령, 직업유무, 가족의 동거여부, 임신희망여부, 미혼부의 지지와 갈등, 가족과의 갈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임신을 희

망할수록, 미혼부가 지지할수록, 가족과 갈등상황일수록 양육을 선택하는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9)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임신 및 출산관련 특성, 미혼모의 내적 특성, 사회적 지지 등의 변인이 양육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 연구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미혼모 자신이 임신을 원했을수록, 임신 사실을 빨리 인지했을수록 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였다. 특히, 양육미혼모들은 경제적 문제와 주거환경 마련에 많은 관심을 보여 생계비지원, 주거시설 확충, 양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취업알선 등을 필요로 하였다. 또한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들은 시설의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미혼모의 양육/입양선택집단의 다양한 변인들과 관련하여 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사회복지수혜대상인 미혼모의 정책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더욱 제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자가 시설미혼모의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진행하는 업무를 하면서 시설미혼모들이 지역사회 및 국가의 경제정책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개인적 특성과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양육/입양을 선택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양육/입양선택과 관련된 변인을 선별하였다. 즉, 미혼모의 상태를 나타내는 임신관련 특성으로 이전임신허수, 임신인지시기를 포함시키고, 개인적 특성으로 미혼모의 나이와 학력, 가치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양친의 생존 유무, 개인의 정서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외로움, 개인의 가치관을 나타내는 부모역할 인지와 사회인식 인지 등을 변인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미혼모의 필요 및 욕구에 맞는 사회복지정책이 실제로 그들의 양육/입양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초점을 두어 사회적 자원 관련변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복지서비스 경험정도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미혼모의 양육 또는 입양을 선택한 집단의 여러 특성의 차이와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미혼모의 사회복지에 필요한 임상

적 개입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양육/입양선택, 임신관련 특성, 개인적 특성, 사회적 자원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양육/입양선택집단에서 임신관련 특성, 개인적 특성, 사회적 자원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임신관련 특성, 개인적 특성, 사회적 자원의 어떠한 변인이 양육/입양선택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011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별 명부에 제시된 전국 미혼모자시설 32개소 중에서 설문응답한 서울지역 2곳, 경기지역 3곳, 충청지역 1곳의 6개소와 전국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24개소 중에서 설문응답한 3개소 등 총 9개소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설문배포 및 회수과정은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설문협조를 구하였는데 지역적인 특색과 시설의 특성에 의하여 대부분의 시설에서 설문응답하지 않아 설문배포 및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설문시기가 여름휴가 전으로 시설 정원보다 적은 인원이 입소되어 있었던 점도 배포할 당시 200부가 목표였으나 회수된 설문지가 123부에 그친 사유라고 생각된다. 배포와 회수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8일 동안 우편을 통하여 배포와 회수가 이루어졌으며 회수된 123부의 설문지 중 사용할 수 없는 1부를 제외한 122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당시 시설에 입소한 임신 중인 미혼모는 55명으로 임신 1개월부터 10개월까지 평균 임신 8개월이었고 출산한 미혼모는 67명으로 출산 후 1개월부터 27개월까지 평균 출산 후 6개월로 조사되었다.

2. 조사도구

1) 양육/입양선택

양육/입양선택은 단일문항으로 양육과 입양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데 양육선택 문항은 현재 임신상태인 미혼모와 이미 출산한 미혼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계획을 갖고 있거나 이미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가 선택하도록 하였고 입양선택 문항은 현재 임신상태인 미혼모와 이미 출산한 미혼모들이 스스로 자녀를 양육하기를 포기하고 입양기관에 보내기로 계획한 미혼모가 선택하도록 하였다.

2) 임신관련 특성

미혼모의 임신관련 특성은 단일문항 2개의 선택형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전임신허수는 ‘한번’, ‘두번’, ‘세번 이상’의 3문항에서 선택하도록, 임신인지시기는 ‘임신 후 1~2개월’, ‘임신 후 3~4개월’, ‘임신 후 5개월 이상’의 3문항에서 선택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임신 및 출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단일문항 1개의 ‘임신 몇 개월’, ‘출산 후 몇 개월’을 직접 기입할 수 있는 기입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개인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나이, 학력, 양친생존유무 등 3문항은 선택형으로 구성하였으며 외로움, 부모역할 인지, 사회인식 인지는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나이는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세 이상’의 4문항 중에 선택하도록 하였다. 학력은 ‘중졸이하’, ‘고등학교 재학(휴학/중퇴 포함)’, ‘고졸’, ‘대학재학 이상’의 4문항 중에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양친생존유무는 ‘양친 생존’, ‘한분 생존’, ‘양친 중 한분은 계부나 계모’, ‘양친 모두 사망’의 4문항 중에서 선택하도록 구성하였다.

외로움은 Rusell et al.(1980)이 개발한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을 청소년용으로 변안하여 측정된 척도를 사용하였다(Doh 1996; Park 1998). 이 척도는 하위요인으로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여부에 관한 10문항과 불만족여부에 관한 10문항으로 구성된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사회적 관계만족 10문항은 역채점하였고 20문항 모두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 정도가 높다고 보았다. 성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용되어 온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척도 개정 당시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94였으며 Park(1998)의 Cronbach' α 는 .90이고 본 연구의 Cronbach' α 는 .92이다.

부모역할 인지는 Donnelly & Voydanoff(1991)가 10대 미혼모 입양태도 연구에서 사용했던 '부모 역할에 대한 기대' 척도를 Yoon(2000)이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미혼모가 아기에게 갖는 부모 역할에 대한 관심 혹은 기대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가 만일 아기를 기른다면, 아기는 자라면서 엄마로서의 나를 꼭 필요로 할 것이다',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돌볼 능력이 있다', '나는 아기를 기르는데 따르는 경제적 책임을 질 작정이다' 등의 긍정적 8문항과 '만일 내가 아기를 기르게 된다면 아기는 나의 자유를 빼앗을 것이다', '만일 아기를 기르게 된다면 직업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등의 부정적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점 Likert 척도로 '반드시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로 평정하여 13문항 중 부정적인 5문항은 역코딩 하였다. 13문항을 모두 합산하여 부모역할에 대한 기대점수로 보는데 점수범위는 최하 13점에서 최고 39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Yoon(2000) 척도의 Cronbach' α 는 .86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 α 는 .87로 나타났다.

사회인식 인지는 Kim(2004)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는데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 서러움,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의 정서적 위기감을 인식하는 정도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태도에 대하여 미혼모가 인지한 주관적 평가인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평정하였으며 점수범위는 최하 5점에서 최고 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미혼모 자신이 미혼모를 바라보는 사회인식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인지의 Cronbach' α 는 .73이다.

4) 사회적 자원

(1)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척도는 Kim(1995)이 변안, 수정,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 내용은 한 개인이 가족, 친척, 친구 및 이웃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서적 지지(감정어입, 관심, 사랑과 신뢰), 물질적 지지(돈, 노동적 도움, 시간 등), 정보적 지지(충고, 제안, 지도, 정보 등)와 평가적 지지(확신시켜주기, 피드백 등)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지지 제공자의 유형을 8가지(아버지, 어머니, 미혼부, 형제/자매, 친척, 시설 내/외부 친구, 관계 전문가)로 나누어 각 지지 제공자에 대한 지지내용과 만족도 요인을 알아보기도록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의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모두 그렇지 않다', '대부분 그렇지 않다', '보통', '대부분 그렇다', '모두 그렇다'로 1점에서 5점까지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범위는 최하 25점에서 최고 125점이고 Kim(1995) 연구의 전체 Cronbach' α 는 .9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척도는 사용하지 않고 기능적 측면의 척도 25문항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Cronbach' α 는 .97이다.

(2) 복지서비스 경험정도

미혼모의 복지서비스 경험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모든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의료지원서비스 경험, 자립지원 프로그램 경험, 미혼모지원기관 프로그램 경험 등 3문항의 선택형으로 구성되었고 해당하는 문항에 모두 표기하도록 하여 전체 복지서비스 참여횟수에 대한 총합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의료지원 서비스경험에는 산전검사, 산후검사, 기타 의료서비스가 포함되고 자립지원 프로그램 경험에는 취업준비교육, 진로교육, 자녀양육 지원 등이 포함되며, 미혼모지원기관 프로그램 경

험에는 일반교양, 자아성장, 상담, 문화체험, 멘토링, 성교육, 경제교육 등이 포함되었다. 참여횟수는 최하 0회에서부터 최고 11회로 분포되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양육/입양선택 및 임신관련 특성, 개인적 특성, 사회적 자원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표준편차를 실시하였고, 양육/입양선택집단에서 임신관련 특성, 개인적 특성, 사회적 자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변량분석, 3집중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수별 양육/입양선택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PSS 17.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양육/입양선택, 임신관련 특성, 개인적 특성, 사회적 자원의 일반적 경향

양육/입양선택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양육선택은 76명(62.3%), 입양선택은 46명(37.3%)으로 한국여성개발원(2009) 선행연구결과인 양육선택미혼모(53.5%)보다 양육선택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입양선택미혼모(39%)보다 입양선택비율이 낮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양육선택이 늘어나고 입양선택이 줄어든 결과로 나타났다.

임신관련 특성의 일반적 경향은 Table 1에서와 같이 임신 중인 미혼모는 55명(45.1%), 출산한 미혼모는 67명(54.9%)으로 나타났고 이전 임신 횟수 한번은 전체 122명 중 74명(60.7%)으로 대부분이 첫 임신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이 33명(27%), 세 번이상이 15명(12.3%) 순으로 나타났다.

임신인지 시기에 있어 1~2개월에 임신을 인지한 미혼모는 전체 122명 중 60명(49.2%)으로 나타났고 3~4개월은 32명(26.2%), 5개월이상은 30명(24.6%) 순으로 나타나 전체 미혼모의 절반가량이 1~2개월에 임신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 학력, 양친생존유무에 따른 개인적 특성의 일반적 경향은 Table 2와 같다. 나이는 전체

Table 1. A general tendency of pregnancy-related factors

		(N=122)
	Variables	Frequency(%)
Pregnancy/	Pregnancy	55(45.1)
Delivery	Delivery	67(54.9)
Number of previous	Once	74(60.7)
	Twice	33(27.0)
Pregnancy	More than three times	15(12.3)
Pregnancy recognition time	1~2 month	60(49.2)
	3~4 month	32(26.2)
	Over 5 month	30(24.6)

122명 중 ‘19세 이하’가 19명(15.6%), ‘20~24세’가 53명(43.4%), ‘25~29세’가 26명(21.3%), ‘30세 이상’이 24명(19.7%)으로 나이분포는 20~24세, 25~29세, 30세 이상, 19세 이하 순으로 많았다.

학력은 ‘고졸’ 47명(38.5%), ‘고등학교 재학’ 37명(30.3%), ‘대학재학 이상’ 31명(25.4%), ‘중졸 이하’ 7명(5.7%) 순으로 과반수 이상이 고졸 이상으로 나타났다.

양친생존유무를 보면 ‘양친생존’은 74명(60.7%), ‘부모 가운데 한 분 생존’은 25명(20.5%), ‘양친 중 한분이 계부/계모’는 16명(13.1%), ‘양친 모두 사망’은 5명(4.1%) 순으로 과반수 이상이 양친이 생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결혼가족으로 분류되는 원가족에 속한 미혼모의 비율이

Table 2. A general tendency of age, education level and presence or absence of parents

		(N=122)
	Variables	Frequency (%)
Age	Under age 19	19(15.6)
	Age 20~24	53(43.4)
	Age 25~29	26(21.3)
	Over age 30	24(19.7)
Education level	Less junior high school	7(5.7)
	High school attend (include absence/quit)	37(30.3)
	High school graduate	47(38.5)
Presence or absence of parents	Higher than college	31(25.4)
	Presence of both	74(60.7)
	Presence of single parent	27(22.1)
	Single parent and one step mother/father	16(13.1)
	Absence of both	5(4.1)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이고 특정한 가족형태나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점차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성들로 구성된다(Han 1998)는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외로움, 부모역할 인지, 사회인식 인지의 일반적인 경향은 Table 3과 같다. 외로움의 전체 평균(2.08)은 ‘외롭지 않다’와 ‘외롭다’의 중간으로 나타났고 부모역할 인지의 전체 평균(2.17)은 ‘그렇다’와 ‘반드시 그렇다’의 중간으로 나타나 부모역할에 대한 인지가 긍정적이었으며 사회인식 인지의 전체 평균(2.54)은 ‘그렇다’와 ‘보통’의 중간으로 나타나 미혼모를 바라보는 사회인식에 대하여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Table 3. A general tendency of loneliness, cognition of parental role and cognition of social recognition

(N=122)		
Variables	M	S.D
Loneliness	2.08	.420
Cognition of parental role	2.17	.417
Cognition of social recognition	2.54	.799

사회적 자원의 일반적인 경향은 Table 4와 같다. 사회적 지지의 전체 평균(3.28)은 ‘보통’과 ‘대부

분 그렇다’의 중간으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지지를 받는다고 나타났다. 이는 가족이나 시설 관계자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를 받는다(Koh 2002; Lee & Chun 2005; Lee 2001;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9)는 선행연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복지서비스 경험정도는 전체 4.2회로 전체 프로그램(14가지)에 비해 참여가 낮게 나타났다.

Table 4. A general tendency of social resource

(N=122)		
Variables	M	S.D
Social support	3.28	.671
Experience of welfare service	4.20	2.574

2. 양육/입양선택집단에서 임신관련 특성, 개인적 특성, 사회적 자원의 차이

1) 양육/입양선택집단의 임신관련 특성 차이
 양육/입양선택집단의 임신관련 특성의 차이는 Table 5와 같다.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임신인지 시기로 나타났다. 양육선택집단은 1~2개월에 대부분 임신을 인지하고 있으며 3~4개월, 5개월 이상 순으로 나타났으나 입양선택집단은 임신인지 시기별 차이가 없어 두 집단

Table 5.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of pregnancy-related factors

(N=122)				
Variables		Self-nurture group	Adoption-choice group	Total
		(Frequency, %)		
Number of previous pregnancy	Once	45(59.2)	29(63.0)	74(60.7)
	Twice	21(27.6)	12(26.1)	33(27.0)
	More than three times	10(13.2)	5(10.9)	15(12.3)
	Total	76(100)	46(100)	122(100)
χ^2		.22		
Pregnancy recognition time	1~2 month	45(59.2)	15(32.6)	60(49.2)
	3~4 month	17(22.4)	15(32.6)	32(26.2)
	Over 5 month	14(18.4)	16(34.8)	30(24.6)
	Total	76(100)	46(100)	122(100)
χ^2		8.39*		

*p<.05 **p<.01 ***p<.001

간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이는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가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보다 임신사실을 빨리 인지한다(Nho & Kim 2004)고 하는 선행연구와 같다. 한편 이전임신 횟수에서는 양육선택집단과 입양선택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양육/입양선택집단의 개인적 특성 차이

양육/입양선택집단의 나이, 학력, 양친생존유무 차이는 Table 6과 같다. 나이에서 양육선택집단과 입양선택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양육선택집단은 20~24세 연령대와 30세 이상 연령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해 입양선택집단은 20세 이상의 연령대가 많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20~24세 연령이 많았으며 30세 이상 연령대에서 양육선택집단은 27.6%, 입양선택집단은 6.5%로 나타나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따라서 30대 이상에서는 압도적으로 입양

보다는 양육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육을 선택한다(Nho & Kim 2004 :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9)는 연구결과와 같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입양을 선택한다는(Nho & Kim 2004)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학력에서 양육선택집단은 고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양선택집단은 고등학교재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양친생존유무에서도 양육선택집단과 입양선택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양육/입양선택집단의 외로움, 부모역할 인지, 사회인식 인지 차이는 Table 7과 같다.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부모역할 인지로 나타났다. 양육선택집단의 평균(2.37)이 입양선택집단의 평균(1.85)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는 양육선택

Table 6.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of age, education level and presence or absence of parents

(N=122)				
Variables	Self-nurture group	Adoption-choice group	Total	\bar{x}
	(Frequency, %)			
Age	Under age 19	11(14.5)	8(17.4)	19(15.6)
	Age 20~24	29(38.2)	24(52.2)	53(43.4)
	Age 25~29	15(19.7)	11(23.9)	26(21.3)
	Over age 30	21(27.6)	3(6.5)	24(19.7)
	Total	76(100)	46(100)	122(100)
Education level	Less junior high school	2(2.6)	5(10.9)	7(5.7)
	High school attend	22(28.9)	15(32.6)	37(30.3)
	High school graduate	35(46.1)	12(26.1)	47(38.5)
	Higher than college	17(22.4)	14(30.4)	31(25.4)
	Total	76(100)	46(100)	122(100)
Presence or absence of parents	Presence of both	42(55.3)	32(69.6)	74(60.7)
	Presence of single parent	20(26.3)	7(15.2)	27(22.1)
	Single parent and one step mother/father	10(13.2)	6(13.0)	16(13.1)
	Absence of both	4(5.3)	1(2.2)	5(4.1)
	Total	76(100)	46(100)	122(100)

* $p < .05$ ** $p < .01$ *** $p < .001$

Table 7.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of loneliness, cognition of parental role and cognition of social recognition

(N=122)

Variables	Self-nurture group (N=76)		Adoption-choice group (N=46)		t
	M	S.D	M	S.D	
Loneliness	2.08	.459	2.08	.350	.014
Cognition of parental role	2.37	.351	1.85	.304	- 8.556***
Cognition of social recognition	2.58	.774	2.48	.845	- .680

*p<.05 ** p<.01 ***p<.001

집단이 입양선택집단에 비해 부모역할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입양선택집단에 비해 양육선택집단이 부모역할에 대해 보다 더 긍정적이라는 선행연구(Donnelly & Voydanoff 1991; Yoon 2000)와 같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외로움과 사회인식 인지는 양육/입양선택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3) 양육/입양선택집단의 사회적 자원 차이

양육/입양선택집단의 사회적 지지의 차이는 Table 8과 같다. 사회적 지지 전체 점수와 하위영역 점수에서 양육선택집단과 입양선택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양육선택집단은 정서적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순으로 나타났고 입양선택집단은 평가적 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

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순으로 나타났다.

양육/입양선택집단의 복지서비스 경험정도 차이는 Table 9와 같다. 전체 복지서비스 경험정도는 양육선택집단의 평균(4.63)이 입양선택집단의 평균(3.54)보다 높게 나타나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p<.05).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의료지원 서비스는 양육선택집단 평균(1.47)이 입양선택집단 평균(1.17)보다 높게 나타나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고(p<.05) 자립지원프로그램도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p<.01). 한편 미혼모지원기관 프로그램의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복지서비스 경험정도는 전체적으로 낮은 참여로 나타났으나 하위변인 간 차이에서 볼 때 위의 결과는 양육선택집단의 참여도가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9)와 같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Table 8.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of social support

(N=122)

Variables	Self-nurture group (N=76)		Adoption-choice group (N=46)		t
	M	SD	M	SD	
Social support	3.34	.746	3.19	.522	-1.229
Emotional support	3.41	.782	3.23	.561	-1.333
Informational support	3.37	.765	3.19	.542	-1.523
Material support	3.19	.781	3.05	.589	-1.016
Evaluation support	3.36	.765	3.30	.543	- .519

*p<.05 **p<.01 ***p<.001

Table 9.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of experience of welfare service

(N=122)

Variables	Self-nurture group (N=76)		Adoption-choice group (N=46)		t
	M	SD	M	SD	
Experience of welfare service	4.63	2.555	3.54	2.429	-2.322*
Medical service	1.47	.808	1.17	.677	-2.201*
Assistant programs for self-support	1.08	.796	.61	.614	-3.434**
Unwed mother-supporting institute's programs	2.08	1.564	1.76	1.702	-1.053

*p<.05 **p<.01 ***p<.001

Table 10.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of satisfaction of unwed mother-supporting institute's programs

(N=122)

Variables	Self-nurture group (N=76)		Adoption-choice group (N=46)		t
	M	SD	M	SD	
Satisfaction of unwed mother-supporting institute's programs	1.24	.944	1.07	.926	-.978
General culture program	1.68	1.279	1.60	1.222	-.352
Self-development program	1.25	1.130	.78	1.099	-2.244*
Counselling program	1.39	1.102	1.28	1.133	-.549
Cultural experience program	1.18	1.209	.81	1.029	-1.751
Mentoring program	.33	1.159	.52	1.312	.847
Sex education program	1.62	1.388	1.44	1.297	-.711

*p<.05 **p<.01 ***p<.001

복지서비스 경험정도의 하위변인 중 미혼모지원기관 프로그램을 따로 분리하여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프로그램 하위변인별로 살펴본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전체프로그램 만족도는 참여경험이 낮은 이유로 평균점수가 매우 낮게 나타났고 집단 간 차이가 없으나 하위변인 별 집단 간 차이는 자아성장프로그램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p<.05). 자아성장프로그램은 부모역할훈련, 심성훈련, 예술심리치료, 심리검사, 분노조절, 사이코드라마 등으로 구성되어있어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양육선택집단이 입양선택집단에 비해 자아성장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임신관련 특성, 개인적 특성, 사회적 자원 변수의 양육/입양선택의 영향력

본 연구에서는 양육/입양선택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임신관련 특성, 개인적 특성, 사회적 자원으로 변인을 나누어 설정하였고,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활용된 주요 변인과 그에 따른 표본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미혼모의 입양 및 양육 태도는 입양을 선택한 경우를 0, 양육을 선택한 경우를 1로 하는 이분변수로 구성하였다. 임신관련 요인으로는 이전 임신횟수와 임신인지시기가 포함

되었으며, 개인적 특성 요인으로 나이, 학력, 양친 생존유무를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의 통제를 위해 포함하였으며, 외로움, 부모역할인지, 사회인식 인지도 활용하였다. 사회적 자원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인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로 구분하여 포함하였고, 복지서비스 경험정도를 포함하였다.

미혼모의 양육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

아보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12 와 같다. 먼저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모형의 카이제곱 값은 83.259로 유의수준이 0.001미만이므로, 상수의 값을 제외한 모든 계수의 값이 0이라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며, 또한 모형의 예측정확도가 89.3%로 매우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모형은 적합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모형의 적합성을 근거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하면 임신

Table 11. Value & define range

	Value & define range
Self-nurture/adoption-choice	Self-nurture 1 Adoption-choice 0
Pregnancy-related factors	1. Continuous quantitative data (M) 1.52
1. Number of previous pregnancy	2. Pregnancy recognition time
2. Pregnancy recognition time	1) 1~2 month 2) 3~4 month 3) Over 5 month
Personal characteristic factors	1. Age
1. Age	1) Under age 19
2. Education level	2) Age 20~24
3. Presence or absence of parents	3) Age 25~29
4. Loneliness	4) Over age 30
5. Cognition of parental role	2. Education level
6. Cognition of social recognition	1) Less junior high school
	2) High school attended (include absence/quit)
	3) High school graduate
	4) Higher than college
	3. Presence or absence of parents
	1) Presence of both, Presence of single parent = 1
	2) Single parent and one step mother/father,
	Absence of both = 0
	4~6. Continuous quantitative data
	4. (M)2.08
	5. (M)2.17
	6. (M)2.54
Social resource factors	1. Continuous quantitative data
1. Social support	- (M) 3.33
- Emotional support	- (M) 3.33
- Informational support	- (M) 3.13
- Material support	- (M) 3.33
- Evaluation support	2. Continuous quantitative data
2. Experience of welfare service	(M) 4.2

관련특성 요인 중에는 임신 인지가 유의미하였다. 영향력의 방향은 Exp(B)값과 1과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데, Exp(B)값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함에 따라 나타나는 Odds Ratio의 변화라고 볼 수 있으며, Exp(B)값이 1보다 크면 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1보다 작으면 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각각의 변인 간 계수 비교가 불가능하며, 오직 Exp(B)값과 1과의 비교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영향력의 방향을 살펴보면 임신 인지가 빠를수록 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적 특성 요인에서는 미혼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인지가 높을수록 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양육선택요인과 같은 결과로서 나이가 많은 미혼모가 여러 가지로 미숙한 10대와 20대 초반의 미혼모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자신과 자녀의 미래에 대한 변화에 책임감을 갖는 행동이 양육선택이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그 결과로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개인의 가치관이 양육을 선택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관행, 인식, 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미혼모 스스로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수용하는 것이며 양육선택에 있어 사회적 위치가 강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양육을 선택하는데에 영향을 보이는 변인으로는 사회적 자원 요인 중 정서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 변인이다. 즉 미혼모의 정서적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평가적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양육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시설에 거주하는 미혼모는 다양한 복지적 수혜대상자로 심리정서적 지지와 더불어 훈련과 교육, 정보 등을 통한 평가적 지지가 양육모라는 현실적 어려움에 있어 필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양육선택집단과 입양선택집단의 사회적지지 변인의 차이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영향력으로 시설환경이 주는 안정감과 물질적 지원과는 별개로 양육미혼모에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복지서

Table 12. Factors affecting a decision on self-nurture or adoption

		(N=122)		
	Variables	B	S.E	Exp(B)
Pregnancy-related factors	Number of previous pregnancy	- .221	.725	.802
	Pregnancy recognition time	-1.524	.804	.218*
	Age	.836	.370	2.306*
Personal characteristic factors	Education level	.168	.369	1.183
	Presence or absence of parents	.277	.710	1.320
	Loneliness	1.550	1.364	4.712
	Cognition of parental role	.495	.091	1.640***
	Cognition of social recognition	-.396	.425	.673
Social resource factors	Emotional support	.479	.209	1.614*
	Informational support	-.092	.223	.912
	Material support	.000	.167	1.000
	Evaluation support	-.525	.210	.592*
	Experience of welfare service	.251	.121	1.286*
Constant		-15.488	6.220	.000

-2 Log Likelihood=78.415, $\chi^2=83.259^{***}$

Predicted group membership 89.3

* p<.05 ** p<.01 *** p<.001

비스의 경험정도에 대한 양육선택도 주목할 수 있는데, 복지서비스의 경험정도가 많을수록 양육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설미혼모 중에서 미혼모가 임신한 사실을 빨리 알게 될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부모역할 인지가 높을수록 정서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복지서비스 경험이 많을수록 양육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양육선택미혼모와 입양선택미혼모의 임신관련 특성, 개인적 특성, 사회적 자원의 차이와 그 영향력이 어떠한가를 파악하여 시설미혼모의 상황에 맞는 사회복지 개입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미혼모자시설 중에서 서울지역 2곳, 경기지역 6곳, 충청지역 1곳 등 총 9개소에 입소되어 있는 시설 미혼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 백분율, 일원변량분석, 3검증, t-test,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분석에는 SPSS 17.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입양선택집단의 임신관련 특성은 임신인지 시기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보였고 개인적 특성에서는 나이, 부모역할 인지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으며 사회적 자원의 복지서비스 경험정도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또한 복지서비스의 하위변인 중 의료지원서비스와 자립지원프로그램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한편 복지서비스 경험정도의 하위변인 중 미혼모지원기관 프로그램을 따로 분리하여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프로그램 하위변인별로 살펴본 결과 자아성장 프로그램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임신인지 시기가 빠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부모역할 인지가 높을수록, 정서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를 받을수록, 복지서비스 경험정도가 많을수록 양육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영향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사회적 자원의 요인 중 사회적지지 변인은 양육선택집단과 입양선택집단의 차이검증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요인으로 양육을 선택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차이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드러난 결과,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는 입양을 선택하는 미혼모보다 나이가 많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인식의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양육을 자발적으로 선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정신적, 경제적 지지체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결과는 양육/입양선택에 따라 미혼모를 지원하는 방향이 차별화되어야함을 구명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양육과 입양에 대한 결정은 부모역할 인지와 같은 개인적 특성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접근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매우 제한적이다. 즉, 임신인지시기에 따른 사후대책에서 양육/입양선택에 따른 지원방법의 방향이 바뀔 것이고 개인의 경험과 가치관에 의해 양육과 입양이 결정된다고 하면 양육과 입양의 결정을 앞둔 미혼모들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심리정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담치료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입양을 선택하려고 하는 미혼모라면 입양결정에 이르기까지 의료지원과 자립관련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들을 대상으로는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 및 아이 돌봄 지원 같은 실질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경제적 자립과 자녀양육이라는 이중고를 격어내야 하는 양육선택 미혼모에게는 자녀양육 지원이 미혼모와 미혼모 자녀의 성장을 위한 실질적 지지체계의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자녀와 함께 살아갈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므로 적성검사와 직업훈련과 같은 재기를 위한 접근도 필요하다. 특히 복지서비스 경험에 있어 반복적인 프로그램의 양산에 그쳐서는 안 되며 미혼모 자신이 복지정책 참여자의 입장이 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 위의 논의를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양육이나 입양 중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자립과 책임이 따르는 건강하고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서 성장하는 것이 향후 정책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뒤로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어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전국 미혼모자시설 중 서울지역 2곳, 경기지역 6곳, 충청지역 1곳 등 총 9개소에 입소한 미혼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대표성이 부족하므로 제가 미혼모까지 포함하는 전수조사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양육/입양선택집단의 변인 간 차이와 영향력을 볼 수 있었으나 미혼모의 내밀한 심리적 작용에 대하여 볼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어 후속연구에는 질적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양육/입양선택에 미치는 변인은 다양하나 본 연구는 임신관련 특성, 개인적 특성, 사회적 자원만 파악하여 다른 변인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혼모의 양육/입양선택집단에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이 추가되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Ahn JJ, Kim JH(2006)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unmarried mother's child-rearing decision: Focusing on the role of social relationship. J Korean Counc Child Right 10(4), 605-624
- Ahn SD(1984) Study on the unwed mother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analysis of factors relating her occurrence and welfare measures.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Choi KW(2005)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unwed mother and her family-of-origin. J Korean Society Youth Protection Guidance, 8, 47-73
- Doh HS(1996) The relationship of shyness, interpersonal adjustment, and peer acceptance to loneliness in children. J Child Stud 17(2), 33-45
- Donnelly B, Voydanoff P(1991). Factors associated with releasing for adoption among adolescent mothers. Family Relations. 40, 404-410
- Han YJ(1998) Influence factors to self-esteem of teenage and twenties unmarried mother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Kim MH, Cho JY, Cheong JO(2013) A study on the single-mom supporting policy and youth education system in Korea. J Gov Policy 5(2), 71-90
- Kim WH(2004) Predictive factors for decision making in adoption among unwed mothers in the residential care.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Kim YS(1995)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mong adults with mental disorder.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Koh SK(2002)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unmarried mother's psychological distres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2009) Unwed mother's life world and policy agenda
- Lee BS, Chun YJ(2005) A study on life history of unwed mothers. J Women's Stud 16, 11-32
- Lee JY(2001)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among the unmarried mother in social facilitie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2014) The present condition of single parent family in the whole country by Year. www.mogef.go.kr [cited 2014 April 20]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08) The current situation report of adoption in Korea
- Nho CR, Kim WH(2004) Predictive factors of baby release for adoption among unmarried mothers. J Korean Society Child Welf 17, 49-79
- Park SH(2001) A study on unwed mother's keeping a chil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Park SY(1998) The relations between family functioning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loneliness in adolescent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Resnick, M. D. (1984). Informal adoption among black families(Washington D.C.: National Urban League)
- Russell D, Peplau LA, Cutrona CE(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 Personality Soc Psychology, 39, 472-480
- Yoon MH(2000) A study of the factors related on the pregnancy and the adoption of young child of teen-age unwed mothers. Master's Thesis, Sookmyung Womans University